# 김경주 시에 나타난 감각 운용 연구

박한라\*

I 서론

Ⅱ 공감각을 통한 대상의 투시

Ⅲ 감각의 병합을 통한 실재의 구체화

Ⅳ 결론

### 【국문초록】

본고는 감각을 통해 실재를 사유하는 특징을 중심으로 김경주 시를 살펴보았다. 김경주 시에서 공감각은 감각이 감각을 투시한다. 이때 감각은 실재에 다가서기 위해 내적 융합을 통해 새로운 감각의 충위를 형성한다. '감각의 병합'은 독립적인 감각들이 반복적으로 병합되면서 실재를 사유한다. 이 과정에서 새로운 풍경이 도출된다. 감각을 통해 실재를 사유하는 창작 기법은 기존의 세계를 낯설게 바라볼 수 있는 감각의 세계를 형성한다. 그 결과 시는 이성적인 도달점보다는 감각의 사유 그 자체로 종결되며, 끊임없이 감각의 진화를 이룬다.

주제어: 김경주, 감각, 사유, 실재, 공감각, 감각의 병합

## I . 서론

2000년대 이후 등장한 시인들은 '미래파'1)로 지정되면서 새로운 시풍을

<sup>\*</sup> 고려대학교

이끌고 왔다. 미래파의 시인 중에 김경주 시인은 감각<sup>2)</sup>을 통해 자신만의 실험성을 획득하여 주목을 받아왔다. 그는 2004년에 등단하여 지금까지 시 집 네 권을 상재<sup>3)</sup>해왔다. 그의 시는 해석의 난해함이 제기되기도 할 만큼 전위적인 특성을 지닌다. 이러한 시풍은 미래파 이후 신인 시인들의 작품 에도 영향을 주고 있다. 이 시점에서 첫 시집 상재 이후로 한국 문단에서 꾸준히 조명 받고 있는 김경주 시에 대한 진지한 논의가 요청된다.

현대시 연구에서 감각은 대부분 오감으로 분화되어 그것이 어떻게 세계를 재현해내는지에 대한 이미지 연구로 수렴되어왔다. 감각은 시의 세계를 표상하는 역할에 국한된 채, 감각이 존재를 드러내는 문제에 대해서는 비교적 그 해명이 부족한 실정이다. 철학의 계보를 통해 살펴보더라도, 플라톤에서 데카르트에 이르기까지 감각은 존재를 알아내는 데 있어 이성의 진리를 위한 매개나 수단에 불과했다. 그럼에도 현대시에는 감각이 사유의 징후로나타나 존재를 향해 발현되는 경우가 관찰된다. 본고는 김경주 시에서 존재의 실재를 사유하기 위해 감각이 어떻게 운용되는지 살펴보기로 한다.

그의 시에 대한 연구는 많지 않으나 그 가운데 그의 실험적인 시작(詩作)에 관한 논의들이 주를 이룬다. 먼저 평론을 살펴보면 강계숙4)은 숭고로서의 환상을 미적 범주로 고려하면서 현실의 시간으로 환원되지 않는 시간이나 나와 타자 사이에 흐르는 시간을 음악으로 해석한다. 또한 시인

<sup>1)</sup> 권혁웅, 「미래파 - 2005년, 젊은 시인들」, 『문예중앙』, 2005, 봄.

<sup>2)</sup> 신형철 비평가는 김경주 시를 감각의 기술론으로 보고, 감각으로 "무엇을 사유하는 가'보다는 어떻게 감각하는가'가 더 중요해졌다. 이제는 감각이 당대의 의제다."(신형 철, 「감각이여, 다시 한번 -김경주의 시에 대한 단상」, 『몰락의 에티카』, 문학동네, 2008, p.299.)라고 표명함으로써 그의 시를 살펴보았다.

<sup>3)</sup> 네 권의 시집으로, 『나는 이 세상에 없는 계절이다』(2006), 『기담』(2008), 『시차의 눈을 달랜다』(2009). 『고래와 수증기』(2014)가 있다.

<sup>4)</sup> 강계숙, 「'다른 생을 윤리하는' 시와 시인들 : 신영배·김경주·이준규의 시집」, 『문학판』 통권 21호, 2006 여름.

이 실존한 곳과 그가 지향하는 곳 사이의 간격을 시차로 느끼는 현상에 주목했다. 강유정5)은 김경주 시를 '체음의 시학'이라 보고 세상을 몸 안의음으로 내재화한다고 본다. 남기택6)은 환상적 실험시의 경향을 통해 김경주 시를 분석한다. 김윤정7)은 그의 시를 전위 예술로 보고, 문장이 무질서하게 헝클어져 있는 난맥상을 보여준다고 언급한다. 장이지8)는 그의 시에 있어서 전위성을 '새로운 언어의 형신(形神)'으로 보고 의미 확정의 불가능성이라는 언어의 한계를 뛰어넘으려는 시도로 본다. 시집 해설로 강정은그의 시를 불구에 관한 내용으로 접근한다.9) 강계숙은 그의 시를 기존의논리로부터 벗어난 불가능한 말로 보고 답 없는 수수께끼, 비의미성을 표현하기 위한 언어에 대해 언급하며10) 서동욱은 시차가 가시화되는 현상에 대해 논의한다.11) 조재룡은 그의 시가 삶의 잠재성을 일깨우기 위해 감수성이 통념과 겨루고 있다고 본다.12) 논문으로 이혜현13)은 김경주 시의 상상력을 라캉의 정신분석학과 가스통 바슐라르의 상상력을 통해 논의하였

<sup>5)</sup> 강유정, 「체음(體音)의 존재 변증법: 김경주론」, 『오늘의 문예비평』 통권 제64호, 2007 봄.

<sup>6)</sup> 남기택, 『상상력의 미래, 혹은 단절 : 황병승, 김근, 김경주, 김중일을 중심으로』, 『문학마당』 제7권 제2호 제 23호, 2008 여름.

<sup>7)</sup> 김윤정, 「전위 시인들의 무기(武器)로서의 언어: 「기담」, 김경주 저 / 「나는 맛있다」, 박장호 저 <書評〉」, 『시현실』 제11권 제1호 제39호, 2009 봄.

<sup>8)</sup> 장이지, 「기담, 참혹한 것의 심리학: 김경주, 『기담』, 『리토피아』 제9권 제1호 통권 33호, 2009 봄.

<sup>9)</sup> 강정, 「불굴을 향한 마음의 불구, 또는 영혼의 빈 공간」, 『나는 이 세상에 없는 계절이다』, 랜덤하우스, 2006.

<sup>10)</sup> 강계숙, 『프랑켄슈타인-어(語)의 발생학, 『기담』, 문학과지성사, 2008.

<sup>11)</sup> 서동욱, 「시차의 시」, 『시차의 눈을 달랜다』, 민음사, 2009.

<sup>12)</sup> 조재룡, 「잠재성의 주재자」, 『고래와 수증기』, 문학과지성사, 2014.

<sup>13)</sup> 이혜현, 『김경주의 시 안에서의 무의식, 내적 공간의 다양한 발현의 공존: 라깡과 가스통 바슐라르를 중심으로』, 『전농어문연구』, 서울시립대학교 인문대학 국어국문학 과, 제22집, 2010.

다. 이와 같은 선행연구로 미루어볼 때, 김경주 시의 특징은 언어의 새로운 실험, 음악에 대한 논의, 상상력과 환상성으로 요약해 볼 수 있다. 그러나 워낙 선행 연구의 자료가 소수다보니 한 주제에 대한 본격적인 연구는 거 의 전무하다.

본고는 김경주 시가 시적 도전 아래에 환상을 바탕으로 전개된다는 점을 동의하면서 출발한다. 따라서 그의 시에 있어서 실재를 사유하는 '감각운용'이 어떠한 구조로 진행되는지 살펴봄으로써 그것이 어떻게 환상으로이어져 새로운 감성을 만들어내는지 고찰해볼 것이다. 김경주 시에 나타난 감각은 현실을 재현하는 것이 아닌 내면적인 것이나 비가시적인 것을 육화하여 현전케 한다. 이러한 감각 운용은 환상과 맞닿아 있다. 본고에서 다루는 환상은 라캉이 언급하는 실재와 관련있다.

라캉은 실재를 상징적 기록의 잔여로 보고, 그 잔여는 상징계를 움직이게 하는 원동력이 된다고 언급한다. 14 그는 실재에 해당하는 대상 a와 주체(\$)와의 관계를 환상이라고 말한다. 이는 기표적 삶에 함몰되어 있는 주체가 자신의 완전한 충족에로 나아가기 위해 불가능한 꿈을 꾸기 때문이다. 15 김경주 시에서 화자는 주체로서 언어로 구성된 자신의 감각 너머의실재를 향해 나아가며, 이로 하여금 감각 운용의 구조가 구현된다.

본고는 감각을 연구하기 위해 '공감각'과 '감각의 병합'을 중심으로 그의 작품을 살펴보기로 한다. 김경주 시에 나타나는 공감각은 감각의 전이라는 특징만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감각이 감각으로 투시되면서 대상의 실재를 향해 나아가는 성질을 지닌다. 이때 감각들은 서로 전이되고 융합되면서

<sup>14)</sup> 김상환, 「기표의 힘과 실재의 귀환」, 『철학사상』 제16권 4호, 서울대학교 철학사상연 구소, 2003, p.532, 참조.

<sup>15)</sup> 권순정, 『라캉의 환상적 주체와 팔루스』, 『철학논총』 75집, 새한철학회, 2014, p.27, 참조

'복합적인 감각의 충위를 형성'해낸다. 이와는 달리 '감각의 병합'은 대상에 대한 감각들이 실재를 향해 반복적으로 등장하는데, 이러한 이미지들이 병 합되어 '감각의 몽타주를 통한 풍경'이 제작된다. 감각을 통해 실재를 사유 하는 창작 기법은 기존의 세계를 낯설게 바라볼 수 있는 세계를 구축한다.

김경주 시집은 발간될 때마다 조금씩 시작법의 차이를 보인다. 그럼에도 공감각과 감각의 병합을 통해 환상을 구축한다는 점은 공통으로 발견된다. 따라서 연구 범위는 지금까지 나온 네 권의 시집으로 정한다.<sup>16)</sup>

이러한 연구가 감각이 시에서 세계를 현시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세계의 실재를 사유할 수 있음을 살펴볼 수 있는 기회가 되길 바라며, 이를 통해 김경주 시의 난해한 부분이 소통으로 이어지길 바란다.

### Ⅱ. 공감각을 통한 대상의 투시

김경주 시는 현실을 있는 그대로 드러내지 않는다. 이는 대상이나 현상을 시인의 몸으로 체화하여 다시 뱉어내는 과정에서 현실과는 다른 새로운 시의 풍경이 가공되기 때문이다. "시학에서만큼 감각이 중시되어야 할 영역도 달리 없을 것이다. 그런데 불행이도 우리 시학은 여전히 데카르트 적이다."17) 시를 이성적으로 이해할 수 있다면 시는 이성에 종속되어 있다는 것이다. 시에서 감각이 중시될 때 시는 정치나 어떠한 타자로부터 자유로

<sup>16)</sup> 네 권의 시집 전체의 텍스트가 '감각'을 통해 세계를 사유하는 것으로 볼 수는 없으나, 본고는 네 권의 시집에서 공통적으로 드러나는 특징인 '공감각'과 '감각의 병합'을 중 심으로 텍스트를 선정하여 표현의 특징과 의의를 살펴볼 것이다.

<sup>17)</sup> 권혁웅, 「감각의 논리」, 『미래파-새로운 시와 시인을 위하여』, 문학과지성사, 2005, p.17.

울 수 있다.

김경주 시는 감각으로 대상의 본질을 탐구한다. 특히 '공감각'은 그의 시에서 착안점이 되어 시의 세계를 이끌어간다. 공감각이란 '감각 간의 전이'를 중요시한다. "감각의 전이는 원관념에서 보조관념으로 전이된다. 왜냐하면 보조관념의 감각은 시인의 실제의 감각체험에서 상상적으로 촉발된 것이기 때문이다." 18) 본고에서 다루는 공감각은 '감각'에 국한된 전이의 측면만 다루며 그것이 실재를 향한 반복 구조와 환상으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보편적인 은유와 변별점을 갖는다.

다음 시를 통해 공감각을 통한 환상과 그것의 시적 효과를 살펴보도록 한다.

외로운 날엔 살을 만진다

내 몸의 내륙을 다 돌아다녀본 음악이 피부 속에 아직 살고 있는지 궁금한 것이다

열두 살이 되는 밤부터 라디오 속에 푸른 모닥불을 피운다 아주 사소한 바람에도 음악들은 꺼질 듯 꺼질 듯 흐들리지만 눅눅한 불빛을 흘리고 있는 낮은 스탠드 아래서 나는 지금 지구의 반대편으로 날아가고 있는 메아리 하나 를 생각한다

나의 가장 반대편에서 날아오고 있는 영혼이라는 엽서 한 장을 기다린다. '내 워크맨 속 갠지스, 부분

위 시에서는 두 개 이상의 감각이 전이되는 과정이 두 연으로 제시된다. 1연에서 "외로운 날엔 살을 만"지는 촉감은 2연에서 "내 몸" 속의 "음악"

<sup>18)</sup> 김준오 『시론』, 삼지원, 1982, p.171.

인 청각으로 전이된다. 여기서 감각의 전이는 한 감각이 다른 감각을 투시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살을 만지는 촉감에 대한 청각화는 살을 만지는 행위의 본질을 알아내기 위한 감각 간의 전이다.

이때 몸속의 음악을 살을 만지면서 듣는 공감각은 환상과 유사하다. 환상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이유는 공감각으로 표현하려는 대상의 본질이 '실재'이기 때문이다. 실재는 상징적 기록의 잔여로서 어떤 다른 기표와 교환되거나 대체되지 않지만 끊임없이 기표를 회전하게 하는 지점이다.<sup>19)</sup> 공감각은 실재를 재현하려 하기 때문에 공감각을 이루는 감각은 다른 감각으로 전이되는 과정이 있을 뿐 실재에 다가갈 수 없다. 현실에 안착시킬 수없는 실재를 재현하기 위한 최대한의 표현방법은 감각을 통한 '환상'으로 그칠 수밖에 없는 것이다. 감각의 주체가 욕망하는 실재는 영원히 실재를 표현할 수 없음을 말해주는 동시에 끝없는 결핍상태를 증명할 뿐이다. 따라서 감각의 주체는 실재의 변주 속에서 변화를 꿈꾸는 '과정 중의 주체'로 존재한다. 주체는 실재를 통해 욕망의 완전한 충족을 기대하며, 그 과정에서 불가능한 실재에 대한 환상 구도가 만들어지는 것이다.<sup>20)</sup>

"라디오 속에 푸른 모닥불을 피"우는 행위도 결국은 라디오의 "음악"을 시각으로 표현한 결과다. 청각에 해당하는 "음악"이 "푸른 모닥불"로 시각 화되기 때문에, "아주 사소한 바람에도 음악들은 꺼질 듯 꺼질 듯 흔들"린 다는 환상이 가능하다. 이러한 공감각 또한 청각에 해당하는 음악을 투시 하는 시각의 결과다. 공감각을 통한 감각들 간의 투시는 감각들의 상호교 환으로 인한 새로운 감각의 층위를 형성한다.

따라서 감각의 투시를 통한 공감각이 이끌어낸 환상은 새로운 감각의

<sup>19)</sup> 김상환, 「기표의 힘과 실재의 귀환」, 『철학사상』 제16권, 서울대학교 철학사상연구소, 2003, 6, p.81, 참조

<sup>20)</sup> 실재와 환상의 관계는 권순정, 앞의 논고, p.29, 참조,

충위로서 낯선 감성을 불러일으킨다. "시의 경우, 새로운 감각은 낡은 사유보다 언제나 우월"<sup>21)</sup>하다. 물론 이러한 단정은 위험할 수 있으나, 감각 간의 투시로 생겨난 감각들의 내적 융합은 현실에서는 느낄 수 없는 감각이다. 이는 첫 번째 감각만으로 재현되는 대상을 다시 한 번 다른 감각으로 사유하는 방식으로서, 존재하지 않는 것을 표현하려는 부단한 '감각의 생성 과정'이다.

새로운 감성과 시의 사유 간의 관계성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한다.

(중략)

서로 다른 붓털이 만나서 만들어 가는 하나의 획

이상하게 한 획을 긋는 붓에서는 바람 냄새가 난다

붓을 삶는다

삶은 붓은 혈압에 좋다

「획(書)」 부분

「획(畫)」에서 "한 획을 긋는 붓"이라는 시각적 이미지는 "바람 냄새"라는 후각적 이미지로 변환된다. 그래서 "붓을 삶"으면 "혈압에 좋다"라는 환상이 가능하다. 이는 붓을 삶으면 그 속의 바람도 함께 삶아진다는 발상에서 비롯된다. 획을 긋는 붓에서 바람 냄새를 느끼는 공감각은 새로운 감

<sup>21)</sup> 신형철, 『감각이여, 다시 한번 -김경주의 시에 대한 단상』, 『몰락의 에티카』, 문학동 네. 2008. p.302.

각 층위를 형성함으로써 낯선 감성을 발현시킨다. 낯선 감성은 획을 긋는 붓의 시각적 이미지와 바람 냄새에 대한 후각적 이미지의 교집합 지점에서 출몰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러한 공감각이 이루는 사유의 결과는 무엇인가. 삶은 붓이 혈압에 좋다는 마지막 전언은 결국 감각에 의한 결과에 불구하다. 따라서이 시에서 사유는 잠언의 형태가 아닌 감각의 화학작용을 통해 제시되므로 다양한 의미망을 제공할 뿐 의미를 단정 짓지 않는다. 그럼에도 감각들의 내적 융합은 사유의 실체이며 대상에 대한 새로운 성질을 발현시킨다. 또한 시가 종결된다 하더라도 의미가 단정되지 않으므로, 사유는 멈추지 않고 지속된다.

다음은 감각의 내적 융합이 반복되는 시를 살펴보도록 한다.

몇 세기 전 지층이 발견되었다

그는 지층에 묻혀있던 짐승의 울음소리를 조심히 벗겨내기 시작했다

(중략)

시간을 오래 가진 돌들은 역한 냄새를 풍기는 법인데 그것은 돌 속으로 들어간 몇 세기 전 바람과 빛 덩이들이 곤죽을 이루고 있기 때문이다 그것들은 썩지 못하고 땅이 뒤집어져야 모습을 드러내는 것이다 (중략)

「주저흔」부분

「주저혼」에서 시각적 이미지에 해당하는 "지층"은 청각적 이미지인 "짐 승의 울음소리"로 전이된다. 화자는 "캄캄한 동굴"에서 지층을 조금씩 긁 어내면서 "자신이 흐느끼고 있는 것처럼 느껴졌다"고 고백한다. 이는 감각 의 내적 융합에 의한 환상의 결과라 볼 수 있다. 또한 다음 전개되는 연에서 후각적 이미지인 돌들의 "역한 냄새"는 "몇 세기 전 바람과 빛 덩이"라는 시각적 이미지로 투시된다. 이 또한 감각의 내적 융합을 통한 환상에 해당한다. 이러한 시의 전개는 감각이 반복적으로 다른 감각을 투사한 구도로, 결국 감각 간의 내적 융합의 반복을 통해 이루어진다. 본래의 감각이다른 감각을 통해 나타나는 환상은 화자가 느낀 세계에 대한 이성적인 종결 지점이 없다. 감각 간의 투시는 대상의 실재를 향하기 때문에 의미로구체화되지 않는다. 감각은 대상의 실재에 도달하지 못하고 계속 실패한채 '연쇄의 형태'로 진행되는 것이다. 이와 같은 시는 감각이 대상의 실재에 대한 징후로 작동할 뿐이다. 이는 이성이나 사실적 재현과 대척점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그것들을 넘어서는 감각의 반란이다. 대상의 실재를 알기 위해 감각들은 반복적으로 내적 융합을 이루어 새로운 감각의 층위를생성해가며, 그 지점에서 환상을 통해 낯선 감성이 출몰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감각 운용을 그림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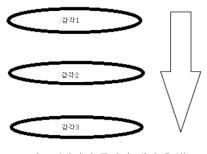


그림 1 〈감각의 투사와 내적 융합〉

김경주 시에서 공감각은 본래의 감각(감각1)을 새로운 감각(감각2)으로 투시함으로써 대상에 대한 실재를 사유한다. 감각2는 감각1에서 발현된다. 그림1에서 감각의 투시는 아래로 내려간 화살표로 나타내었다. 이때 감각의 투시는 대상의 실재를 포섭하기 위해 반복되지만 그 결과는 사유의 징후로서 나타날 뿐이다. 감각이 대상의 실재를 완전히 포섭할 수 없기 때문이다. 환상은 감각이 불가능한 실재에 다가가기 위한 방법이며 감각의 내적 융합을 통해 제시된다. 여기서 현실에서는 느낄 수 없는 '새로운 감각의 층위'가 출현하는 동시에 대상의 성질이 새롭게 구현되기 때문에 낯선 감성이 분출될 수 있다.

## Ⅲ. 감각의 병합을 통한 실재의 구체화

김경주 시에서는 현실에서 인식되는 감각이 아닌 새로운 감각을 찾아나서기 위한 노력이 자주 보인다. 이 노력의 일환으로 감각이 다른 감각을 투시하여 내적 융합을 이룰 뿐만 아니라 다양한 감각들이 병합되어 외부로 확산되기도 한다.

다음 시를 통해 감각이 어떠한 방식으로 외부로 확산되는지 살펴보도록 한다.

죽은 사람을 물가로 질질 끌고 가듯이

염전의 어둠은 온다

섬의 그늘들이 바람에 실려온다

(중략)

폐선의 유리창으로 비치는 물속의 어둠

선실 바닥엔 어린 갈매기들이 웅크렸던 얼룩,

비늘들을 벗고 있는 물의 저녁이 있다

(중략)

몇천 년을 물속에서 울렁이던 쓴 빛들을 본다

물의 내장들을 본다

「저녁의 염전」부분

「저녁의 염전」은 '저녁의 염전'의 풍경을 화자의 감각으로 재조립한 작품이다. "바람에 실려"오는 "그늘", "폐선의 유리창으로 비치는 물속의 어둠", "어린 갈매기들이 웅크렸던 얼룩", "비늘들을 벗고 있는 물의 저녁", "물의 내장"은 결국 "염전의 어둠"을 표현한 화자의 감각들이다. 저녁의염전에 있는 구체적 풍경들이 화자의 감각에 의한 이미지들로 병합되어염전의 전반적 이미지로 확산되는 것이다.

이때 저녁의 염전을 표현하는 구체적 풍경이 병합될수록 저녁의 염전은 현실로부터 점점 그 모습이 흐릿해진다. 이는 저녁의 염전에 대한 화자의 감각들이 저녁의 염전을 사실적으로 재현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의 실재에 대해 사유하기 때문이다. 화자가 저녁의 염전을 새롭게 감각할수록 그것은 염전의 현전이 아닌 염전의 '어둠'에 대한 존재성을 향해 나아가다.

감각의 내적 융합이 감각의 전이를 통해 새로운 감각 층위를 형성한다면, 감각의 병합은 감각들이 서로 교통하지 않은 채, 합산될 뿐이다. 따라서 위 시는 염전의 어둠에 대한 '감각의 몽타주'로 볼 수 있다.

"그늘들이 바람에 실려온"다든지 "비늘들을 벗고 있는 물의 저녁"과 같은 감각은 환상에 가깝다. 언어로 표현된 감각은 염전의 어둠에 대한 실재

를 향해 나아가지만, 결국 실패한 채 환상으로 승화된 채 실재와 관계를 맺기 때문이다. 감각의 실패가 환상으로 이어진다는 점은 감각의 내적 융합과 유사하지만, 감각의 병합은 감각들이 실재를 포획하는 것에 실패함으로써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내적 융합이 아니라, 실재를 포획하지 못함으로써 반복적으로 풍경의 다른 부분에 대한 감각들을 등장시키면서 이루어진 '외적 확산'이다. 즉 "폐선의 유리창", "얼룩", "물" 등에 대한 감각은 염전의 어둠의 실재를 지속적으로 가리키지만, 감각이 대상의 본질을 경험해도 놓치는 부분들이 끊임없이 나타나기 때문에 감각은 계속 확산되고 병합될뿐이다. 그 결과 감각의 병합은 실재에 대한 '감각의 풍경화'로 구체화되면서 확장된다.

다음은 추상에 대한 감각의 외적 확산을 살펴보기로 한다.

문득 어머니의 필체가 기억나지 않을 때가 있다 그리고 나는 고향과 나 사이의 시간이 위독함을 12월의 창문으로부터 느낀다 낭만은 그런 것이다 이번 생은 내내 불편할 것

골목 끝 슈퍼마켓 냉장고에 고개를 넣고 냉동식품을 뒤적거리다가 문득 만져버린 드라이아이스 한 조각, 결빙의 시간들이 피부에 타 붙는다 저렇게 차게 살다가 뜨거운 먼지로 사라지는 삶이라는 것이 끝내 부정하고 싶은 것은 무엇이었을까 손끝에 닿은 그 짧은 순간에 내 적막한 열망보다 순도 높은 저 시간이 내 몸에 뿌리내렸던 시간들을 살아버렸기 때문일까 (중략)

달사이로 진흙 같은 바람이 지나가고 천천히 오늘도 하늘에 오르지 못한 공기들이 동상을 입은 채 집집마다 흘러들어가고 있다 귀신처럼.

「드라이아이스

-사실 나는 귀신이다 산목숨으로서 이렇게 외로울 수는 없는 법이다」 부분

마지막으로 그 방의 형광등 수명을 기록한다 아침에 늦게 일어난다는 건 손톱이 자라고 있다는 느낌과 동일한 거 저녁에 잠들 곳을 찾는다는 건 머리 칼과 구름은 같은 성분이라는 거 처음 눈물이라는 것을 가졌을 때는 시제를 이해한다는 느낌, 내가 지금껏 이해한 시제는 오한에 걸려 누워 있을 때마다 머리말에 놓인 숲. 한 사람이 죽으면 태어날 것 같던 구름

「연두의 시제(時制)」부분

「드라이아이스(이하 생략)」는 '외로움'을 감각의 경험으로 병합한 결과다. 1연에서 화자는 "고향과 나 사이의 시간이/위독함을 12월의 창문으로부터 느"끼고 있다. 이는 고향과 내가 멀어져가는 외로움이 12월이라는 겨울의 창문으로 시각화된 결과다. 2연에서 화자는 문득 "드라이아이스 한조각"을 만지게 된다. 화자는 드라이아이스에 대한 촉감을 통해 "차게 살다가 뜨거운 먼지로 사라지는/삶"에 대해 생각한다. 이 과정에서 외로움은드라이아이스의 촉각으로 표현된다. 이때 "드라이아이스는"는 "12월의 창문"이라는 시각을 촉각화한 결과가 아니라, '외로움'을 드러내기 위한 다양한 감각들이 서로 교통하지 않은 채 병합되는 과정에서 등장한 것이다. 시의 후반부에서 외로움은 결국 "하늘에 오르지 못한 공기들이/동상을 입은채 집집마다 흘러들어가고 있다"는 환상으로 표현된다. 이 전언은 비록 환

상이지만 "동상을 입은" "공기"에 대한 촉감을 통해 "하늘에 오르지 못한 공기"라는 상황에 의한 외로움이 형상화된 결과다. 이 과정에서 화자가 느 끼는 감각들은 반복적으로 외로움을 지향한 채 등장하면서 병합되지만, 결 국 그것의 실재에 도달하지 못한 채 시가 종결된다.

이렇게 감각들이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이유는 감각이 외로움의 실재를 표현하는 데 있어 계속 실패하기 때문이다. 화자는 외로움에 대한 감각의 편린을 '기억'에서 찾는다. 이 과정은 감각이 실재를 포섭하기 위한 작용으로, 재현 너머에 있는 환상으로밖에 현전할 수 없다. 따라서 외로움에 대한 풍경은 왜곡되고 변형된 환상의 감각으로 구현된다.

「연두의 시제(時制)」도 '시제'를 기억 속의 감각을 통해 구체화한 시다. 화자는 시간을 감각으로 느끼기 위해 "형광등 수명을 기록"한다. 또한 "손톱이 자라고 있다는 느낌"이나 "머리칼과 구름"과 같은 감각할 수 있는 것들의 상관관계를 통해 "아침"과 "저녁"에 대해 분석한다. 또한 화자는 "눈물이라는 것을 가졌을 때" "시제를 이해"한 것을 떠올리며, 눈물을 이해했을 때의 시제를 "오한에 걸려 누워 있을 때마다 머리맡에 놓은 숲"이나 "한 사람이 죽으면 태어날 것 같은 구름"과 같은 환상으로 제시한다. 이시에서 시제를 이해하기 위한 사유는 시제에 대한 감각의 경험이 반복적으로 출현하면서 진행된다. 결국 시제를 환상 속의 감각으로 구현하는데, 이러한 과정은 감각이 시제의 실재를 포섭하기 위한 징후라 볼 수 있다. 감각은 현실 세계를 답습하는 것으로 익숙해져 있지만 이 시에서의 감각은 시에서 다루고자 하는 실재를 표현하기 위해 외부로 확장되어 병합되다가, 결국 대상의 실재에 도달하기 위해 환상으로 이어진다.

감각의 내적 융합은 즉물적인 대상에 국한된 표현방법이다. 그 대상에 대한 감각을 다른 감각이 투시함으로써 새로운 감각의 충위를 형성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시의 효과도 대상의 '성질'에 대한 새로운 감각으로 활성

화된다. 그러나 감각의 병합은 즉물적인 대상뿐만 아니라 추상적인 대상까지도 다룰 수 있다. 추상적인 대상은 기억의 감각을 병합시켜 새로운 풍경으로 연출된다. 감각의 병합을 통한 풍경은 대상의 성질보다 대상의 분위기를 낯설게 형성하는 시의 효과를 지닌다.

이와 같은 감각 운용을 그림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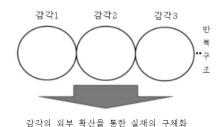


그림 2〈감각의 병합〉

김경주 시에서 감각의 병합은 대상의 실재에 근원을 둔 감각들이 외부로 확장된 결과다. 먼저 즉물적인 대상에 대한 감각화는 그 대상의 실재를 향해 반복적으로 등장한 감각들이 병합되면서 만들어진다. 예로 앞에서 살펴본 <저녁의 염전>에서 저녁의 염전은 즉물적인 대상이므로 그것에 대한 감각들이 발현되면서 외부로 감각이 확산된다. 이때 감각들은 염전의 풍경 중 '어둠'의 실재를 표현하기 위해 반복 구조를 이루며 그것들이 병합되어 풍경은 현실과는 다르게 제작된다.

이와는 달리 감정과 같은 추상을 감각화 할 때는 애초부터 대상이 없기 때문에 화자의 기억 속에서 감각을 갖고 온다. 마찬가지로 그것의 실재를 향한 감각은 반복적으로 등장한다. 예로 <드라이아이스>에서는 외로움을 표현하기 위한 기억 속의 감각들이 반복되고 병합되어 추상에 대한 실재를 육화하는 풍경이 완성된다. 추상에 대한 감각의 병합은 감각할 수 있는 대

상이 있어야 구현할 수 있는 내적 융합과는 달리, 그 대상이 없음에도 기억의 병합을 통해 풍경을 제시해낸다.

위 두 방법은 결국 현실에서 새로운 풍경을 발견하기 위한 시적 도전이다. 외부로 확산되는 감각 운용은 감각1, 감각2, 감각3…이 내적 융합과 같이 서로 전제가 되어 연결되는 것이 아니라, 독립적인 상태에서 병합된다. 결국 실재를 포섭하기 위한 감각들이 독립적인 형태로 출현하여 이어질뿐이다. 그러나 이것은 실패로 이어지므로 감각은 그것을 향해 계속 도전함으로써 '반복'의 형태를 이룬다. 이러한 과정 중 감각은 현실을 벗어나환상을 통한 새로운 감각으로 승화되어 실재와 관계한다. 그럼에도 실재를완전히 포섭할 수 없으므로 시는 그것에 대한 감각의 몽타주 형태로서 제시된다. 이렇게 제작된 새로운 풍경은 낯선 분위기를 형성한다.

## Ⅳ. 결론

본고는 김경주 시에서 감각 운용을 살펴보기 위해 '공감각'과 '감각의 병합'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공감각은 감각의 전이를 바탕으로 한다. 대상에 대한 감각이 다른 감각으로 이어지는 '감각의 투시'는 결국 원래 나타내고자 했던 대상의 실재를 찾아내기 위한 감각의 내적 융합이다. 이렇게 만들어진 감각의 내적 융합은 새로운 감각 충위를 형성하면서 현실에서는 느낄 수 없는 환상의 형태로 제작된다. 대상의 실재를 포섭하기 위해 감각의 내적 융합이 반복되지만 그 결과는 사유의 징후로서 나타날 뿐이다. 감각이 대상의 실재를 완전히 드러낼 수 없기 때문이다.

감각의 병합은 감각이 다른 감각으로 전이되는 것이 아니라, 독립적인

감각들로 합산되는 구조를 갖는다. 묘사 대상이 즉물적이라면 그것에 대한 감각들이 등장하며 병합된다. 이와는 반대로 감정과 같은 추상을 묘사하기 위해서는 기억 속에서 감각을 갖고 와서 병합시킨다. 이때 기억을 통한 감각은 실재에 다가가는 것을 실패하면서 반복적으로 그것을 표현하기 위해 등장하면서 서로 병합되어 감각의 몽타주와 같은 새로운 풍경을 제시한다. 이때 나타나는 환상은 불가능한 실재와 관련한다.

감각의 내적 융합은 한 감각을 다른 감각이 파고들면서 감각의 새로운 충위를 통해 대상의 성질을 새롭게 현시한다. 그에 반해 감각의 병합은 감각이 외부로 확산되어 낯선 풍경이 만들어질 뿐만 아니라, 추상과 같이 감각할 수 없는 것들을 기억의 감각을 통해 풍경으로 구현해내며, 풍경을 통한 낯선 분위기를 도출한다.

감각이 대상의 실재에 대한 사유로 등장하는 시는 이성적인 도달점보다는 감각의 사유 그 자체로 종결되며, 끊임없이 감각이 증식되어 현실을 벗어난 감각의 진화를 이룬다.

### 【참고문헌】

#### 1. 기본자료

김경주. 『나는 이 세상에 없는 계절이다』, 랜덤하우스, 2006.

김경주, 『기담』, 문학과지성사, 2008.

김경주, 『시차의 눈을 달랜다』, 민음사, 2009.

김경주, 『고래와 수증기』, 문학과지성사, 2014.

### 2. 단행본

권혁웅, 『미래파-새로운 시와 시인을 위하여』, 문학과지성사, 2005.

김준오, 『시론』, 삼지원, 1982.

신형철, 『몰락의 에티카』, 문학동네, 2008.

#### 3. 논문 및 비평

강계숙,「프랑켄슈타인-어(語)의 발생학」,『기담』, 문학과지성사, 2008.

- 강계숙, <'다른 생을 윤리하는' 시와 시인들 : 신영배·김경주·이준규의 시집>, 문학 판 통권 21호, 2006 여름.
- 강유정, <체음(體音)의 존재 변증법 : 김경주론>, 오늘의 문예비평 통권 제64호, 2007 봄.
- 강 정, 「불굴을 향한 마음의 불구, 또는 영혼의 빈 공간」, 『나는 이 세상에 없는 계절이 다』, 랜덤하우스, 2006.
- 권혁웅, 「미래파 2005년, 젊은 시인들」, 『문예중앙』, 2005, 봄.
- 김윤정, <전위 시인들의 무기(武器)로서의 언어: 「기담」, 김경주 저 / 「나는 맛있다」, 박장호 저 <書評>>, 시현실제11권제1호제39호, 2009 봄.
- 남기택, <상상력의 미래, 혹은 단절 : 황병승, 김근, 김경주, 김중일을 중심으로>, 문학마당 제7권 제2호 제 23호, 2008 여름.
- 서동욱, 「시차의 시」, 『시차의 눈을 달랜다』, 민음사, 2009.
- 이혜현, <김경주의 시 안에서의 무의식, 내적 공간의 다양한 발현의 공존 : 라깡과 가스통 바슐라르를 중심으로>, 전농어문연구제22집, 2010.
- 장이지, <기담, 참혹한 것의 심리학 : 김경주, 『기담』>, 리토피아 제1호 통권 33호, 2009 봄.
- 조재룡, 「잠재성의 주재자」, 『고래와 수증기』, 문학과지성사, 2014.

#### **Abstract**

## A Study on Sensory operation in Kim Kyoung Ju's Poetry

Park, Han-ra

Kim Kyoung-joo's thoughts are based on senses. This paper examined how 'synesthesia' and 'sense combination' could reflect the reality of the object. In Kim Kyoung-joo, synesthesia forms a vertical composition by sensing senses. At this time, the sensation appears as a fantasy through inner fusion. The 'merging of senses' is embodied by extracting an abstract from an instant object or the abstract is embodied through the sense of memory. In both forms, independent senses are merged into thinking reality. In this process, a new sensation is derived through illusion. Kim Kyoung-ju's poem is thinking about reality in his sense and constantly proliferates his.

Key Word: Kim Kyoung Ju, sense, think, reality, Synesthesia, Merging senses

박한라

소속 : 고려대학교 강사

전자우편: hanra0912@naver.com

이 논문은 2017년 10월 30일 투고되어 2017년 12월 4일까지 심사 완료하여 2017년 12월 8일 게재 확정됨.